

이광수의 지리적 상상력과 세계인식 — 이광수의 초기 장편 4편을 대상으로 — *

권 은**

요 약

본 논문은 이광수의 초기 장편 4편인 『무정』, 『재생』, 『흙』, 『유정』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세계에서 나타나는 공간지평과 지리적 상상력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역사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해당 텍스트에서 공간지표를 추출한 후 언급횟수가 높은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한 후에 각 공간 간의 역학 관계를 서사와의 관련 속에서 분석하였다.

이광수의 소설은 하나의 고정된 장소에서 전개되지 않으며, 역사적 시기와 작가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작품의 주제의식에 따라 작품 속 공간의 성격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무쌍하게 변모한다. 이는 춘원의 지리적 체험이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경 유학과 대륙 방랑, 북경·상해 체류 등을 통해 동아시아 일대를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학세계에 반영하였다.

『무정』은 ‘평양-경성-동경-(미국)’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적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무정』은 경성에 있던 인물들이 과거지향의 평양과 미래지향의 동경(그리고 미국) 중에서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해외유학을 떠나려는 형식 일행을 가로막는 것이 ‘삼랑진의 수해’라는 것이다. 그들이 해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해탄 등의 ‘외부경계’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삼랑진의 수해가 일종의 ‘내부경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 2016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재생』에서는 ‘감옥’과 같은 폐쇄된 공간이 야기하는 긴장감이 두드러진다. 상해는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이 타락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제시된다. 상해의 모습이 직접 언급되거나 중심인물들이 이동하지는 않지만, 『재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사적 역할을 담당한다.

『흙』은 표면적으로는 ‘서울/살여울’의 식민지 내의 대립관계를 보여주지만, 심층적으로는 ‘동경-서울-살여울-검불랑’ 등의 점층적인 관계망을 보여주며, 일본 제국의 승인을 받은 식민지 엘리트인 허송은 이러한 제국-식민지의 공간적 위계를 확인하고 그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정』에서의 공간지평은 광범위하고 언급되는 지명도 다채롭다. 경성, 동경, 시베리아, 바이칼, 하얼빈, 이르쿠츠크 순으로 언급된다. 기존의 작품들에서 특정 장소가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던 것과는 달리, 『유정』에서는 여러 지명들이 골고루 언급된다. 이는 마치 조선, 일본, 만주, 중국까지가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준다. 『유정』은 제국 일본에 의해 일본-조선-만주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면서 현실화될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

주제어: 지리비평, 지도그리기, 멀리서 읽기, 내부경계, 외부경계, 심상지리

목차

1. 서론
2. 이광수 초기 장편소설에 나타난 공간들의 역학구조
3.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춘원(春園) 이광수의 초기 장편 4편(『무정』, 『재생』, 『흙』, 『유정』)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세계에서 나타나는 공간지평과 지리적 상상력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시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네 작품은 소설 속 공간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작품들로 이광수 문학세계의 변화 추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살피기에 적절한 텍스트들이라 판단된다.

소설은 외부현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문학 장르로, 독자들은 소설 텍스트를 통해 허구 공간과 실질 공간을 연결지음으로써 자신이 속한 국민국가를 하나의 견고한 공동체로 상상하게 된다.¹⁾ 동일한 장소라 하더라도 개인 혹은 민족에 따라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저마다의 서로 다른 '상상적인 지리'(imaginative geography)로 구현된다.²⁾ 작가들은 창작 과정에서 저마다의 고유한 지리적 상상력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작가가 처한 시대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 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소설 속 주요 장소는 단순히 배경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설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라는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된다.³⁾ 특정 장르나 플롯을 선호하는 작가는 자신에게 적합한 실질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 작가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일은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

이광수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춘원의 문학세계의 변모 양상을 지리학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살피려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분석(geocentered approach)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⁴⁾ 이광수의 소설은 하나의 고정된 장소

1)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55면.

2) Robert T. Tally Jr. *Spatiality*, Routledge, 2013, p.91.

3) Moretti, Franco, *Atlas of the European Novel 1800-1900*, Verso, 1998, p.70.

에서 전개되지 않으며, 역사적 시기와 작가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작품의 주체의식에 따라 작품 속 공간의 성격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무쌍하게 변모한다. 이는 춘원의 지리적 체험이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경 유학과 대륙 방랑, 북경·상해 체류 등을 통해 동아시아 일대를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학세계에 반영하였다. 동시대 작가 중 춘원만큼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그의 작품들에는 다른 작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장소들이 등장하거나 언급된다. 각 장소들은 단순한 배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역학 구도 속에서 긴장, 협력, 대립 등의 다양한 역동적 관계를 형성하며 역사적 주요 국면에서 다채로운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 이광수의 문학세계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지리적 장소들이며 그러한 장소들의 지정학적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 문학세계에 대한 지리학적 분석이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의 문학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소들, 예를 들면 일본, 만주, 간도, 러시아, 중국 등에 관한 개별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⁵⁾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광수 문학에 등장하는 동경(東京)은 “문명의 이념적 대리물”⁶⁾, 중국과 러시아는 “망명자와 지

4) Westphal, Bertrand/Tally, Robert T., Jr.(TRN), *Geocriticism-Real and Fictional Spaces*, Palgrave Macmillan, 2015, p.112.

5) 오양호, 『한국소설과 역사체험-삼봉이네 집』을 중심으로 한 이농형 농민소설에 나타나는 간도·만주 공간』(1996); 정주아, 『심상지리(imaginary geography)의 외부, '불확실성의 심연' 과 문학적 공간』(2003); 윤대석, 『일본이라는 거울: 이광수가 본 일본·일본인』(2010); 서희원, 『공동체를 탈주하는 방랑과 죽음으로 귀환하는 여행』(2011); 김동식, 『1910년대 이광수의 문학과 한국근대문학의 비(非)민족주의적 기원들』(2011); 심원섭, 『"일본제 조선기행문"과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2014) 유인혁, 『식민지시기 근대소설과 도시공간: 이광수·염상섭의 장편소설에서 경성을 중심으로』(2015) 등이 있다.

6) 우미영, 『동도(東度)의 욕망과 동경(東京)이라는 장소』, 『정신문화연구』 30권

사의 땅”⁷⁾, 북만주와 시베리아는 “꿈의 세계인 동시에 신비의 세계”⁸⁾ 등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작가의 문학세계를 다루려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 공간들을 고정된 이미지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마저도 소설보다는 기행문과 수필 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⁹⁾ 이광수 장편소설들에서 나타나는 공간지평을 통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여러 공간들 간의 입체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광수의 초기 대표 장편소설인 『무정』(1917), 『재생』(1924~5), 『흙』(1932~3), 『유정』(1933) 등의 4편을 중심으로 지리적 분석을 시도하여 그의 문학세계의 역동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텍스트에서 공간지표를 추출한 후 언급횟수가 높은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한 후에 각 공간 간의 역학 관계를 서사와의 관련 속에서 분석하였다.¹⁰⁾ 그리고 언급횟수에 따라 장소를 표시하는 원의 크기를 결정하였으며, 내부/외부경계, 실질공간, 투사공간 등의 지리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호, 2007, 108면.

7) 정주아, 앞의 글(2003), 270면.

8) 한승욱, 『이광수 소설 공간에 투영된 작가의식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2권, 2004, 14면.

9) 홍순애, 『이광수 기행문의 국토여행의 논리와 공간 정치의 이데올로기』, 『국어국문학』 제170호, 2015.

10) 이러한 방식을 ‘거시분석’ 혹은 ‘멀리서 읽기’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Jockers, Matthew L., *Macroanalysis: Digital Methods and Literary Histor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3, p.23.

2. 이광수 초기 장편소설에 나타난 공간들의 역학구조

1) 과거와의 결별과 문명화된 중심으로의 지향: 『무정』

일반적으로 ‘한국 근대소설의 효시’로 간주되는 『무정』(1917)의 서사는 대부분 평양과 경성에서 발생하며, 주요 인물들은 경의선을 통해 두 도시를 오고 가며 전보, 전화, 편지 등으로 서로 소식을 전한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 근대적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무정』의 서사는 온전히 전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거나 등장하는 장소는 평양(143회)으로 다른 장소들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이 언급된다. ‘평양’은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 김억, 김소월 등 서북 출신 문인들의 사상적 중심지였다.¹¹⁾ 또한 평양은 영채와 형식이 성장한 곳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긴밀히 관련된 장소이다. 『무정』에서 평양은 “전근대적인 세계의 표상과 새로운 문명의 약동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장소”¹²⁾로 묘사된다. 더욱 주목할 것은 경성에서 억제되어 있던 형식의 ‘본래의 자아’가 ‘비일상적 공간’인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변화를 겪는다는 점이다.¹³⁾ 그의 ‘입체적’ 성격은 공간의 이동과 긴밀히 연결된다.

칠성문 안에서 평양 시가를 내려다보고 ‘크기는 크구나’ 하였다. 그때에 형식은 열한 살이라. 그러나 평양이란 이름과 평양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요, 평양이 어떠한 도회인지, 평양에 모란봉 청류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형식은 그때에

11) 정주아,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2, 1면.

12) 정종현, 『한국 근대소설과 ‘평양’이라는 로컬리티』, 『사이』 4권, 2008, 102면.

13)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역,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260면.

사서와 사략과 소학을 읽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학교라는 것도 없었으므로 조선 지리나 조선 역사를 읽어 본 적이 없었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문명한 나라 아이들 같으면 평양의 역사와 명소와 인구나 산물도 알았으리라.’ 그때에 형식은 대동문 거리에서 처음 일본 상점을 보았다. 그리고 그 유리창이 큰 것과 그 사람들의 옷이 이상한 것을 보고 재미있다 하였다. 형식은 갑진년에 들어오던 일본 병정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빨간 줄 두른 모자를 쓰고 칼을 찻거니 하였었다. 그래서 대동문 거리로 오르내리며 기웃기웃 일본 상점을 보았다. 어떤 상점에는 성냥과 석유 상자가 놓였다.(『무정』, 102면)¹⁴⁾



(그림 1): 『무정』의 공간패턴

14) 이광수, 『무정』, 『춘원이광수전집』 1, 삼중당, 1962, 102면. 본문에 인용되는 이광수 작품은 모두 삼중당에서 나온 『춘원이광수전집』을 참조하였다. 이후에는 작품명과 페이지수만을 표시한다.

이광수에게 평양은 현재적 공간이 아니라 ‘회상적 공간’으로 재현된다.¹⁵⁾ 형식이 평양을 처음 접한 것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갑진년(1904년) 무렵이었다. “조선 지리나 조선 역사를 읽어 본 적이 없었”던 이형식이 평양에서 목도한 것은 근대적인 “일본 상점”, “일본 병정”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었다.(102면) 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없었던 그가 전승국 일본의 문명화된 이미지에 압도당하게 된 것이다. 형식은 편지를 남기고 평양으로 떠난 영채를 찾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으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어린 시절 ‘일본’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는 평생 동안 그의 의식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경 유학을 다녀온 후 “책을 사는 버릇이 있어 매삭 월급을 타는 날에는 반드시 일한서방에 가거나, 동경 마루젠 같은 책사에 사오 원을 없이하여 자기의 책장에 금자 박힌 책이 붙는 것을 유일한 재미”(51면)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조선 사람의 살아날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에 가장 문명한 모든 민족, 즉 우리 내지(內地) 민족만한 문명 정도에 달함에 있다 하고, 이리함에는 우리나라에 크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한다”(52면)고 굳게 믿게 된 것이다. 그의 목표는 식민지 조선을 계몽시켜 ‘우리 내지(內地) 민족’만큼 문명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을 벗어나 더 문명화된 제국의 중심지로 이동해야 하며, 형식은 자신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필요로 한다. 그에게 미국 유학 파이자 “서울 예수교회 중에도 양반이요 재산가로 두셋째에 꼽히는”(17면) 김장로는 가장 이상적인 조력자이며, 그의 딸인 ‘선행’과 혼인하는 것은 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채’와 관련된 과거지향적인 ‘평양’과의 결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양에서 영채를 찾지 못하자, 그녀가 자살했

15) 정주아, 앞의 글(2012), 50면.

을 것으로 판단하고 형식은 경성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형식은 기이하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117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문명의 중심지를 향한 형식의 지향의식은 ‘동경’에 대한 언급이 45회나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무정』 연재 당시 이광수는 와세다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 시기에 춘원은 동경의 체험을 다룬 『동경잡신』(1916), 『동경화신』(1917), 『동경에서 경성까지』(1917) 등의 수필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정』의 서사는 ‘평양’(143회)와 ‘경성’(43회)에서 대부분 진행되지만, ‘동경’은 인물들의 의식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장소이다. 평양과 경성이 인물들의 실제 행위가 펼쳐지는 ‘행위 공간’이라면, 동경은 인물의 의식에서 회상되거나 지향되는 ‘투사 공간’이다. ‘동경’은 영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사에서 ‘동경’이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장면은 “죽으러 가던”(157면) 영채가 기차에서 병욱을 우연히 만나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장면부터이다. 영채는 병욱의 도움으로 ‘동경’ 유학의 꿈을 꾸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 이상 ‘평양’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동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무정』의 서사는 ‘평양-경성-동경’의 삼각 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볼 수 있으며, 중심인물들은 시종일관 문명화된 장소를 지향한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작반작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썩 소묘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이러한 모

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라.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무정』 176면)

반면 『무정』에서 재현되는 경성은 ‘문명의 소리’가 여전히 부족한 과도기적 공간이며 중심인물들이 ‘문명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곳이다. 이 장면에서 형식은 다양한 ‘소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에 남대문 정거장의 플랫폼을 울리는 시끄러운 ‘나막신 소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인들이 경성의 근대화를 이끌고 주도하는 세력이며, 경성의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그가 ‘동경’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경 유학은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근대적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형식은 동경 유학생인 까닭에 배학감도 과히 꺾시를 아니하”(47면)였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영채를 근대적 인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곳도 제국의 중심인 동경이다.

『무정』의 서사는 인물들의 과거의 관계가 얽혀 있는 평양에서 관계를 재정립한 후에 정반대로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들에게 평양행은 “과거와의 의식적인 고별을 하기 위한 제의적 절차”¹⁶⁾에 불과했다. 경의선을 타고 북쪽을 향하던 인물들이 이제는 경부선을 타고 남쪽으로 향한다. 이때부터 서사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¹⁷⁾ 부산은 관부연락선을 통해 일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

16) 최주환,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46면.

17)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나던 이형식/김선형과 김병욱/박영채 쌍이 삼랑진에서 홍수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참상을 목도하고는 그들을 위해 구제 활동을 벌이는 이틀(102절-125절)을 제외하면, 〈무정〉의 서사 시간은 1916년 6월 27

이기도 하다. 북쪽이 인물들의 과거에 속하는 공간이었다면, 남쪽은 그들의 미래와 연결된 곳이다.

일반적으로 서사적 공간에는 내부경계와 외부경계가 있으며, 이러한 경계는 서사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한다.¹⁸⁾ 특이한 것은 해외유학을 떠나려는 형식, 선형, 영채, 병욱 등을 가로막는 것이 ‘삼랑진의 수해’라는 것이다. 이들이 해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해탄 등의 ‘외부경계’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삼랑진의 수해가 일종의 ‘내부경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했듯, 형식 일행은 “일본인 경찰서장이 일본인 역장과 교섭하여 순사들에게 일본 여관과 거리에 홍보”¹⁹⁾하도록 하는 등 당국의 협조와 관리 속에서 삼랑진 음악회를 열 수 있었다. 대부분의 관객은 “사오 시간이나 기다리기에 답답증이 났던”(202면) 일본인 승객들이었으며, “흰옷 입은 삼등객”(203면)이 일부 섞여 있었을 뿐이다. 형식 일행은 일본인들의 협조를 얻어 작은 음악회를 열고 일본인 청중들에게서 “팔십여 원”(204면)을 걷어 일본인 경찰서장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일본인 서장은 그 돈으로 조선의 수재민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다시 말해, 중심인물들은 일본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경계’인 삼랑진 수해를 극복하고 문명화된 공간인 일본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무정』에서 ‘외부경계’에 관한 감각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염상섭과 박태원 등의 작품들에서 ‘현해탄’이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 간의 견고한 ‘외부경계’로 등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부러 7월 2일까지의 닷새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김병구, 『이광수의 “무정”론-식민지적 정신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집, 2004, 285면.

18) Moretti, Franco, op.cit.(1998), p.37.

19) 하타노 세츠코, 앞의 책(2008), 391면.

병욱은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독일 백림에 이태 동안 유학을 하고, 금년 겨울에 형식의 일행을 기다려 시베리아 철도로 같이 돌아올 예정이며, 영채도 금년 봄에 동경 상야 음악학교 피아노과와 성악과(聲樂科)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아직 동경에 있는 중인데 그 역시 구월경에 서울로 돌아오겠다. (...) 삼랑진 정거장 대합실에서 자선 음악회를 열던 세 처녀가 이제는 훌륭한 레이디가 되어 경성 한복판에 떨치고 나설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다.(『무정』, 208면)

『무정』의 결말부는 허구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작가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이나 유럽에 관한 대목에서는 피상적인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평양, 동경, 경성 등 구체적인 도시명이 언급되었던 것과는 달리, 미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도시명보다는 ‘미국’이라는 국가명으로 언급된다. 그렇지만 미국(66회)에 대한 언급은 동경과 경성보다도 오히려 많다. 형식과 선형에게 ‘미국’은 강력한 지향 공간으로 제시된다.

형식은 깨어서부터 잘 때까지 선형과 미국만 생각한다. 그래도 조금도 적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더할 수 없이 기뻐다. 형식의 모든 희망은 선형과 미국에 있다. 기생집에 갔다고 남들이 시비를 하고, 돈에 팔려서 장가를 든다고 남들이 비방을 하더라도 형식에게는 모두 우스웠다. 천하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더라도 선형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칭찬하면 그만이다. 또 자기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만인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공경할 것이다. 장래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현재를 가장 가치 있는 듯이 보려 하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진 형식에게는 현재는 아주 가치 없는 것이다.(『무정』, 162면)

‘영어 교사’인 형식은 하루종일 “선형과 미국만”을 생각한다. 미국 유학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출세의 길이다. 그는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만인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공경할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 이는 『무정』을 연재하기 직전까지 실제로 미국행을 시도하다 좌절했던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정』의 공간지표를 다시 정리해 보면, ‘평양-경성-동경-(미국)’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무정』은 경성에 있던 인물들이 과거지향의 평양과 미래지향의 동경(그리고 미국) 중에서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2) 타락한 공간들과 그 배후로서의 상해(上海): 『재생』

『재생』은 <동아일보>에 1924년 11월 9일부터 이듬해 9월 28일까지 총 218회에 걸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표면적으로 남녀의 삼각관계를 기본적 틀로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무정』과 『재생』이 유사한 듯 보이지만, 공간적 설정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재생』에서 드러나는 공간패턴의 변화는 ‘3·1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재생』은 이광수가 『민족개조론』(1922)을 발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처음으로 발표한 문학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는 『민족개조론』에서 한민족의 쇠퇴하고 타락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²¹⁾ 한민족이 현재의 야만적 상태에서 벗어나 ‘민족개조’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그의 사유는 『재생』에서 반복하여 나타난다.²²⁾ 이처럼 『재생』은 ‘민족 개조’와 긴밀히 관련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서사는 중심인물인 신봉구와 김순영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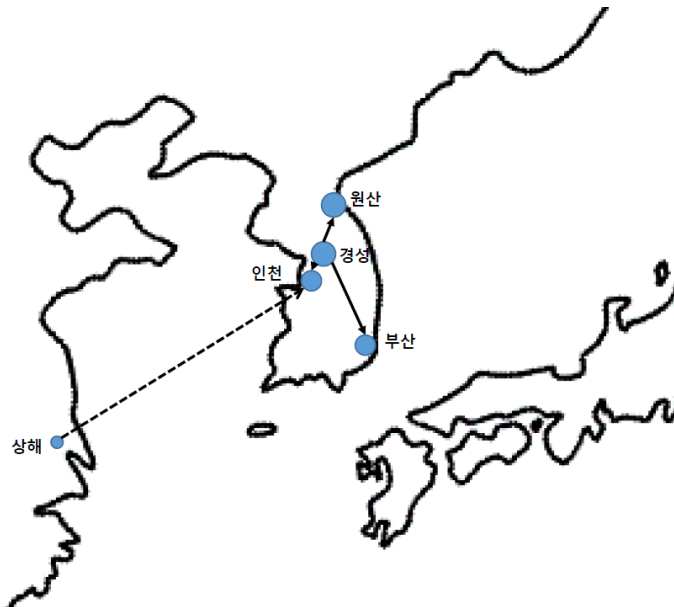
20)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817-8면 참조.

21) 사에구사 도시카쓰/심원섭 역, 『『재생』의 뜻은 무엇인가』,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배틀북, 2000, 152면.

22) 와다 토모미,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예유, 2014, 216면.

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들로, 신봉구는 이 일로 감옥에 수감되고 김순영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 『무정』이 계몽과 발전을 향해 식민지 조선의 외부로 뺏어나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재생』에서는 서사의 대부분이 한반도 내부에서 펼쳐지며 조선이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폐쇄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무정』에서는 공간적으로 확산하려는 에너지가 강했다면, 『재생』에서는 폐쇄된 공간이 이야기하는 긴장감이 두드러진다. 또한 『무정』이 경의선과 경부선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재생』은 경원선과 경부선을 축으로 전개된다.

서사의 중심은 ‘경성’(57회)이지만 ‘원산(석왕사)’(49회)과 ‘인천’(32회), ‘부산(동래)’(24회) 등이 중요한 장소로 등장한다. 원산



(그림 2): 『재생』의 공간패턴

해수욕장, 동래 온천, 인천 미두장 등 통속소설에 의례 등장할 만한 유희적 장소가 서사의 주요 장소로 등장하며, 이곳에서 인물들이 쉽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재생』은 이광수 소설 중에서도 특히 통속적, 대중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평가된다.²³⁾ 3·1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봉구는 감옥에 수감되고, 혼자 남은 순영은 백만장자인 백윤희에게 동래온천에서 겁탈당한 후, 그의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점점 타락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녀는 봉구가 출옥하자 그와 함께 석왕사로 밀회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는 “순영의 속에는 두 순영이가 있었다”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백의 순영이요. 또 하나는 봉구의 순영”(69면)이라는 것이다.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하게 된다. 결국 순영은 봉구를 배신하고 백윤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이미 봉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이에 복수를 결심한 봉구는 인천 미두장에서 일하면서 백만장자가 될 것을 결심하게 된다.

‘나는 인생의 모든 이상과 모든 의무를 다 내어 버렸다. 오늘부터 나는 오백만원의 돈을 모으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봉구가 기미 중매소에 들어가던 날의 결심이다. 그래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기미에 관한 지식을 얻으면 한번 크게 떠보자. 그리해서 제이의 반복창이가 되되 그보다 더욱 큰 반복창이가 되자 하고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길밖에는 마음껏 순영이에게 원수를 갚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전화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연해 걸려오는 손님의 전황 대하여 ‘오정입니다’, ‘팔정이야요’하고 연해 전보로 오는 대판(大坂) 시세와 인천 취인소 시세를 대답하다가도 잠시라도 빈 시간이 생기면 순영의 생각과 분한 생각이 나고 언제나 목적인 오백만원 돈을 만들어 마음껏 순영과 백윤희에게 원수를 갚아 볼까 하고는 혼자

23) 홍혜원, 『“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2호, 2004, 67면.

한숨을 쉬고 주먹을 부르짖었다.(『재생』, 93면)

봉구는 ‘김영진’이라는 가명으로 인천 미두장 증개소에서 일을 하며 ‘오백만 원’의 일확천금을 모아 순영과 백윤희에게 복수할 것을 꿈꾼다. 이광수 작품 중에서 미두장이 작품의 주요 장소로 등장하는 것은 『재생』이 유일하다. 이처럼 『재생』은 일본의 『곤지키야샤(金色夜叉)』를 떠올리게 할 만큼 지극히 통속적이고 자극적인 서사를 보여준다.²⁴⁾ 그리고 이 작품에서 조선의 경제는 일본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로 그려진다. 『재생』이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인물들이 타락하게 된 배후에 ‘3·1운동’에 가담했던 민족주의 세력이 놓여있으며, 그들이 상해(上海)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음을 작가가 반복하여 보여주려 했다는 점이다. 『재생』은 작가가 1921년 상해에서 귀국하면서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자, 그에 대해 나름대로의 자기 변명을 하려고 쓴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²⁵⁾

고려인은 경훈과 만나는 날 자기는 상해에서 들어 온 것과 여러 동지가 비밀히 들어 온 것과 해외에는 ○○단의 동지가 여러 천명 되는 것과 자기네가 이번에 조선과 일본 내로 들어 온 것은 삼십만 원을 만들고자 함인데 경훈이가 십만 원만 담당해야 한다는 말과 만일 경훈이가 십만 원 내면 경훈은 ○○단 중에 가장 큰 공로를 가진 이가 되어서 ○○의 재정을 맡는 책임을 가질 것이라는 말과 또 ○○단의 목적은 이렇고 저렇고 대단히 크고 좋다는 말을 하고 또 자기네는 육혈포와 폭발탄을 가지고 다니니까 만일 자기네의 일을 경찰에 밀고하거나 동지로 약속하였던 사람이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천리만리를 따라 가서라도 목숨을 없애 버리고야 만다는 말을 하고는 양복 속주머니에서 과연 육혈포를 꺼내어 경훈의 눈앞에 번쩍 내 놓는다.(『재생』, 104면)

2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822면.

25) 최주한, 앞의 책(2005), 59면.

‘의열단’을 연상케 하는 상해의 비밀결사 단체인 ‘○○단’의 일원인 고려인(高麗仁)은 경훈에게 십만 원의 비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다. ‘고려인’은 상해 고려인(高麗人)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경훈은 아버지인 미두점 주인 김연오를 살해하게 되고, 봉구는 ‘3·1운동’을 주도했으며 상해 임시정부의 국내 연락책의 임무를 맡았던 경력 등으로 인해 살해범 누명을 쓰게 된다. 이처럼 ‘상해에서 온 사람들=흉악 범죄자’로 설정하려는 경향은 1930년대 대표적 탐정소설인 김동인의 『수평선 너머로』와 채만식의 『엄마』 등에서 두루 나타나는 특성이며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나타난다.²⁶⁾

『재생』의 주요 사건의 배후를 ‘흉악한’ 상해의 ○○단으로 설정한 것은 이 작품을 발표하기 직전에 그가 상해에서 귀국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변절자’로 비난받게 되었던 것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다.²⁷⁾ 비슷한 시기 발표된 『민족개조론』(1922)은 이러한 이광수의 사상 변화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글이다. 주목할 것은 『재생』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장소인 인천, 원산, 부산 등이 모두 ‘항구 도시’로, 상해에서 해상으로 잠입하는 것이 가능했던 장소들이라는 점이다. 기차와 비행기 등이 일본 제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관리되었던 것과는 달리, ‘해상 루트’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열단 등의 저항 세력들은 바다를 통해 조선으로 잠입을 시도하곤 했다.²⁸⁾

『재생』에서 상해는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이 타락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제시된다. 상해의 모습이 직접 재현되거나 중심인물들이 이동하지는 않지만, 『재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사적

26) 정혜영, 『과학과 엽기, 그 사이에서 -탐정소설 〈엄마〉와 〈수평선 너머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2권, 2010, 413면.

27) 사에구사 도시카쓰, 앞의 책(2000), 150면.

28)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깊은샘, 2000, 184-6면.

역할을 담당한다. 『무정』에서 상해가 박진사 등이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근대화의 통로로 표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재생』에서의 흉악한 범죄를 사주하고 야기하는 불온한 공간으로 암시되고 있다. 『재생』에서 그려지는 조선은 감옥과도 같은 폐쇄적 이미지가 강하며 그러한 삼엄한 경계 속을 뚫고 상해의 ‘불온한 세력’이 바다를 통해 조선 내부로 잠입하는 ‘타락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상해에서 바다를 통해 잠입하는 무장 세력은 쉽게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서사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상해는 표면화되어 등장하는 가시적 공간은 아니지만 서사의 흐름을 배후에서 주도하는 주요 공간으로 기능한다.

3) ‘문명/야만’과 ‘제국/식민지’의 중층 대립: 『흙』

『흙』은 <동아일보>에 1932년 4월 12일부터 이듬해 7월 10일까지 총 291회에 걸쳐 연재된 작품으로 이광수의 대표적 농촌계몽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1931년 발생한 ‘만주사변’ 직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흙』은 『무정』에서 문명화된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떠났던 인물들이 식민지 조선으로 되돌아온 이후의 ‘후일담’을 담은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중심 공간은 서울(178회)과 살여울(142회)이다. 농촌계몽소설인 만큼 서울과 살여울의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서사의 큰 축을 이룬다. 『무정』까지만 해도 경성은 여전히 낙후된 과도기적 공간으로 그려졌지만, 『흙』에서는 시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문명화된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서울의 전깃불 바다가 전개될 때에 정선은 마치 지옥 속에서 밝은 천당에 갑자기 뛰어나온 듯한 시원함”(111면)을 느끼게 되고, 시골은 “외국이라 하더라도 야만인이 사는 외국, 도무지 서울 사람이 살 수 없는 오랑캐 나라”(108면)처럼 그려진다. 이처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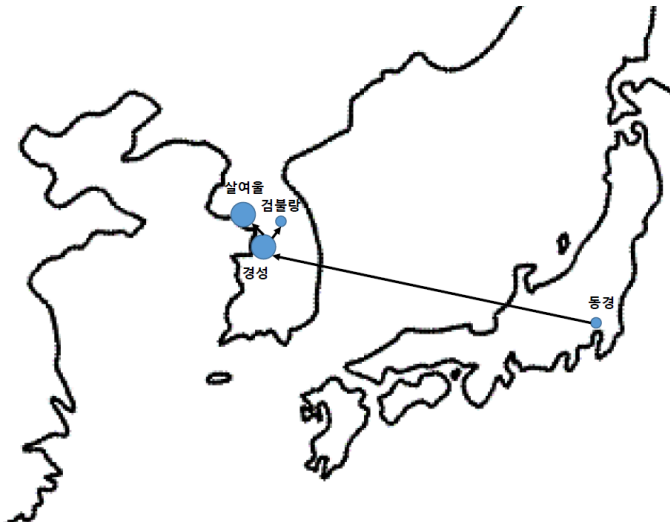
『흙』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된 이분법적 세계를 보여준다. ‘문명/야만’, ‘양반/쌍놈’, ‘빛/어둠’ 등의 식민주의적 위계의식이 서울과 살여울을 축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도시와 시골 간의 대립구도를 통해 낙후된 시골을 계몽·발전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국과 식민지 간의 대립을 통해 제국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며, 일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내의 이상촌 건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작품이다.²⁹⁾

살여울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알기 어렵지만,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정주 부근의 조그만 농촌 마을인 듯 보인다. 살여울은 평양과 신안주 등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특급열차는 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마을이며, 경성에서는 ‘서북쪽으로 칠백 리(약 27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작품 속에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읍에는 여기저기 옛날 성이 남아 있었다. 문은 다 헐어 버리고 사람들이 돌맹이를 가져가기 어려운 곳에만 옛날 성이 남아 있고 총구멍도 남아 있었다. 이 성은 예로부터 많은 싸움을 겪은 성이었다. 고구려 적에는 수나라와 당나라 군사와도 여러 번 싸움이 있었고, 그 후 거란, 몽고, 청, 아라사, 흥경래 혁명 등에도 늘 중요한 전장이 되던 곳이다. 을지문덕, 양만춘, 선조대왕 이러한 분들이 다 이 성에 자취를 남겼다. 청일, 일로 전쟁에도 이 성에서 통탕거려 지금도 삼사십 년 묵은 나무에도 그 탄환 자국이 흑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을 본다. 마치 조선 민족이 얼마나 외족에게 부대꼈는가를 말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것 같은 성이었다.(『흙』, 82면)

허승은 ‘살여울’이 오래 전부터 외세의 침입에 맞써 싸웠던 전쟁터

29) 이선영, 『“흙”의 서사와 그 의미』, 『춘원 이광수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4, 64면.



(그림 3): 『흙』의 공간패턴

였던 곳이었음을 상기한다. 흥미로운 것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 살여울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거주구역이 공간적으로 이분화되어 격리되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살여울의 읍내에는 불과 500여 호가 있으며, 이중에서 200여 호는 일본 사람이고, 면장도 일본 사람이다. 이처럼 작은 농촌 마을인 살여울까지도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살여울의 일본인들은 ‘외세’로 그려지지 않는다. 작품 속에서는 유정근과 같은 조선인 악덕 지주들에 의해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당시의 실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에 진출한 “척식회사라든가, 금융조합이라든가”(75면) 하는 일제의 수탈기에 의해 대다수의 농민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흙』에서는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 수탈의 맥락이 교묘히 감추어져 있다. 『흙』에서의 농촌 부흥이 농민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거나 일제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재력가인 유정근이 갑작스레 회개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문제적이다.³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살여울에서의 계몽운동을 이끄는 지도자인 허승이라는 인물의 행보이다. 그는 동경으로 건너가 고등문관 사법과 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무정』에서 형식이 ‘동경유학’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흙』의 허승은 동경에서 치룬 ‘고등문관 시험’ 덕분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평생의 꿈인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고등문관 시험’을 치루거나 조선에서 ‘조선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굳이 일본까지 건너갈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승이 장래의 처가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고등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도일(渡日)하는 설정은 그의 출세지향적 성향을 보여준다.³¹⁾ 허승은 “전일본에서 모인 수재 중에서 뽑힌 소수 중에 자기가 든 것”(44면)에 크게 기뻐하였다. 이처럼 그는 일본 제국주의 권력과 ‘은밀한 제휴관계’를 유지하는 식민지 지식인이다.³²⁾ 그는 동경, 경성, 살여울, 검불랑 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격차를 완화시키고 동질적인 통합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세 작품들에서 ‘조선’이 60~70여 회 언급된 것에 비해, 『흙』에서는 ‘조선’이 무려 200회 가깝게 언급된다. “조선식 겸손, 조선식 위엄, 조선식 대범, 조선식 자존심, 조선식 겸양”(32면) 등이 연달아 언급되는데, 이는 서술자가 외부자적 관점

30) 이선영, 앞의 글(1994), 77면.

31) 와다 토모미, 앞의 책(2014), 309면.

32) 빌 에쉬크로프트/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17면.

에서 ‘조선’을 대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차가 들어올 때에 송영 나온 군중은 깃발을 두르며 ‘반자이(만세)’를 부르고 중국 사람의 것과 비슷한 털모자를 쓴 장졸들은 차창으로 머리를 내어밀고 화답하였다. 송영하는 군중이나 송영 받는 장졸이나 다 피가 끓는 듯하였다. 이 긴장한 애국심의 극적 광경에 승은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나라를 위하여 죽음의 싸움터로 가는 젊은이들, 그들을 맞고 보내며 열광하는 이들, 거기는 평시에 보지 못할 애국, 희생, 용감, 통쾌, 눈물겨움이 있었다. 감격이 있었다. 승은 모든 조선 사람에게 이러한 감격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전장에 싸우러 나가는, 이러한 용장한 기회를 못 가진 제 신세가 지극히 힘없고 영광 없는 것같이도 생각하였다.(『흙』, 170면)

허승은 경성역에서 만주로 싸우러 나가는 일본 군대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그는 “모든 조선 사람에게 이러한 감격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용장한 기회를 못 가진 제 신세가 지극히 힘없고 영광 없는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그는 제국 일본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선인으로서의 한계를 안타까워한다. 『흙』에서 동경이 20회나 언급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서 살여울보다도 더 낙후된 ‘검불랑’이 11회 언급된다. 종합해 보면, 『흙』은 표면적으로는 ‘서울/살여울’의 식민지 내의 대립관계를 보여주지만, 심층적으로는 ‘동경-서울-살여울-검불랑’ 등의 점층적인 관계망을 보여주며, 일본 제국의 승인을 받은 식민지 엘리트인 허승은 이러한 제국-식민지의 공간적 위계를 확인하고 그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 서사공간의 확장과 제국의 네트워크: 『유정』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유정』이다. 『흙』이 발표된 지 불과 1년 뒤에 발표되었지만, 『유정』은 이광수 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³³⁾ 이 작품은 이광수가 <동아일보>와 결별한 후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장편소설이었다. 춘원은 1933년에 만주, 몽고, 간도 등을 여행한 후 <간도에서>라는 기행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같은 해 발표된 『유정』에는 1910년대의 대륙 방랑과 1933년의 만주 일대 여행의 체험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³⁴⁾ 『유정』은 이광수가 애초에 기행문으로 구상했다가 소설의 형식으로 변환한 작품이기 때문에 공간적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작품 중 하나이다.³⁵⁾ 이 작품은 편지와 일기로 구성된 ‘서간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 근대소설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러시아의 바이칼 호 일대까지 서사적 공간이 확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작가는 후세에 남을 만한 작품이자 외국어로 번역될 만한 작품으로 『유정』을 꼽기도 했다.³⁶⁾

최석과 남정임이 중심인물이고 이들의 편지 사연을 ‘N형’이라는 서술자 ‘나’가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석은 과거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지사이며, 현재는 교회의 장로이자 여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인물이다. 남정임은 최석이 만주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한 남백과와 그의 중국인 아내에서 태어난 딸로서 남백과가 죽은 후 최석의 수양딸이 되었다. 이광수의 장편소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애정삼각관계’는 『유정』에서 최석과 그의 아내

33) 윤홍로, 「춘원 이광수와 ‘유정’의 세계」, 『춘원연구학보』 제1호, 2008, 164면.

34) 한승옥, 앞의 글(2006), 7면.

35) 이철호, 「황홀과 비하, 한국 교양소설의 두 가지 표정」, 『센티멘탈 이광수』, 소명출판, 2013, 208면.

36) 이광수, 「무정 등 전작품을 어(語)하다」, <삼천리>, 1937년 1월.

그리고 수양딸인 남정임 사이에서 발생한다. 최석은 ‘딸과 같이’ 나이 어린 여자와 불륜에 빠진 ‘에로 교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괴로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정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점차 확인해 간다. 그리고 ‘욕망’과 ‘자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최석은 결국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부근으로 떠나버린다. 『유정』에서의 공간지평은 광범위하고 언급되는 지명도 다채롭다. 경성(35회), 동경(29회), 시베리아(29회), 바이칼(22회), 하얼빈(19회), 이르쿠츠크(10회) 순으로 언급된다. 기존의 작품들에서 특정 장소가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던 것과는 달리, 『유정』에서는 여러 지명들이 골고루 언급되고 있다. 이는 마치 조선, 일본, 만주, 중국까지가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림 4]: 『유정』의 공간패턴

후반부에서는 서술자 ‘나’(N)가 바이칼 호 부근에서 사경을 헤매는 최석을 직접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있다. 이 작품에서 조선은 시기와 질투, 이기주의가 팽배한 공간이며, 동경(東京)은 예술과 의료 기술 등이 발달한 선진문명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중심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시베리아와 바이칼 일대는 조선에서의 질곡과 동경에서의 열등감을 털어버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 그려진다.³⁷⁾ 『유정』은 “종교에의 귀의에 의한 영적(靈的) 구원을 절규하는 최초의 작품”³⁸⁾으로 이후의 『사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정』에서는 앞서 분석한 작품들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는 단어인 ‘고국(故國)’이라는 표현이 21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는 이 작품에서 비로소 이광수의 ‘외부경계’에 대한 의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이한 것은 작가의 외부경계에 대한 의식이 하얼빈을 넘어 러시아령인 바이칼호를 향해갈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1931년 발발한 만주사변으로 인해 하얼빈까지 일본 제국의 영역으로 복속된 이후의 시대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한때 조선의 일부였던 ‘만주 일대’에 대한 ‘고토의식(故土意識)’이 드러나고 있다.³⁹⁾ 인물들은 특급열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사는 어느 작품보다도 빠르게 전개된다. 동경, 경성, 하얼빈, 원산, 봉천, 신경, 모스크바 등의 익숙한 도시명뿐만 아니라 산해관, 장가구, 치치하얼, 치타, 이르쿠츠크, 이스보스치카 등의 낯선 지명들도 등장한다.

최석(崔皙)으로부터 최후의 편지가 온 지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그는 바이칼 호수에 몸을 던져 버렸는가. 또는 시베리아

37) 한승옥, 앞의 글(2006), 18면.

38) 윤홍로, 앞의 글(2008), 172면.

39)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학보』 제9호, 2016, 247면.

어느 으스스한 곳에 숨어서 세상을 잊고 있는가. 또 최석의 뒤를 따라간다고 북으로 한정 없이 가 버린 남정임(南貞妊)도 어찌 되었는지, 이 글을 쓰기 시작할 이 때까지에는 아직 소식이 없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일을 알아보려고 하얼빈, 치치하얼, 치타, 이르쿠츠크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부쳐 탐문도 해 보았으나 그 회답은 다 ‘모른다’는 것뿐이었다. 모스크바에도 두어 번 편지를 띄워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모른다는 회답뿐이었다.(『유정』, 15면)

인용문은 『유정』의 서두이다. 중심인물인 최석과 남정임은 모두 바이칼 또는 시베리아 부근으로 사라져 버린 상태다. ‘나’(N)은 경성에 남아 그들의 사연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지만 ‘나’가 어떤 인물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하얼빈, 치치하얼, 치타,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등에 두루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탐문’을 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심지어 그는 비행기를 타고 경성에서 하얼빈으로 단숨에 날아가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비행기로 여의도를 떠났다. 백설에 개개한 땅을, 남빛으로 푸른 바다를 굽어보는 동안에 대련을 둘러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봉천, 신경, 하얼빈을 거쳐, 치치하얼에 들렀다가 만주리로 급행하였다.

웅대한 대륙의 설경도 나에게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였다. 다만 푸른 하늘과 희고 평평한 땅과의 사이로 한량 없이 허공을 날아간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두 친구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아무 여유도 없는 까닭이었다.

만주리에서도 비행기를 타려 하였으나 소비에트 관헌이 허락을 아니 하여 열차로 갈 수밖에 없었다.(『유정』, 80면)

서술자 ‘나’는 비행기를 타고 경성에서 출발하여 대련, 봉천, 신

경, 하얼빈, 치치하얼, 만주리까지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 어떠한 ‘경계의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경계의식은 인물들이 만주를 벗어나 러시아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는 “소비에트 관헌이 허락을 아니 하여”(81면) 열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인들에게 수도인 ‘신경’(新京)과 하얼빈이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급부상한 것과는 연관이 있어 생각해볼 수 있다.⁴⁰⁾ 1931년 제 6대 조선총독으로 취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일본·조선·만주를 묶는 ‘일선만(日鮮滿) 블록’을 주창하기도 했다.

최석은 자신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조선 사회를 등지고 바이칼 지역으로 방랑을 떠난다. 그는 북쪽으로 곧장 떠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정임을 한 번 보아야 하겠어서 동경(東京)”(41면)을 거쳐서 러시아로 떠난다. 그는 “만일 어느 나라의 독재자가 된다고 하면 나는 첫째로 조선인 입국 금지를 단행”(54면)할 것이라는 등 조선 민족 전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에게 정임은 동경(東京)과 동일시된다. 그래서 바이칼 지역에 가서도 최석은 “동경으로 돌아가고 싶다. 정임의 곁으로 가고 싶다”며 “무의식중에 고개를 동경이 있는 방향”(59면)으로 돌리기까지 한다. 이처럼 최석, 정임, N 등 중심인물들은 제국의 중심부에서 시베리아를 향해 연이어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지평은 당시 일본의 만주침략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유정』은 제국 일본에 의해 일본-조선-만주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면서 현실화될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

40) 김백영·조정우, 『제국 일본의 선만(鮮滿) 공식 관광루트와 관광안내서』, 『일본 역사연구』 제39권, 2014, 42면.

3. 결론

지금까지 공간적 관점에서 이광수의 주요 장편소설의 특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광수의 초기 장편인 『무정』, 『재생』, 『흙』, 『유정』의 문학지도를 그린 후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광수의 소설은 고정된 하나의 장소에서 전개되지 않으며, 역사적 시기와 작가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작품의 주제의식에 따라 작품 속 공간의 성격이 다양하게 변모한다. 그는 동경 유학, 대륙 방랑, 북경 및 상해 체류 등을 통해 동아시아 일대를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학세계에 반영하였다. 이광수만큼 다양한 지리적 공간을 직접 체험한 근대 조선인 작가는 찾기 어렵다. ‘인물의 삼각관계’ 등을 중심으로 보면, 이광수의 장편소설들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각 작품들은 고유한 내적 논리를 보여주며 동시대의 역사적 맥락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는 시대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며, 그의 시대의식은 작품 속의 공간적 패턴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무정』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문명화된 공간으로 동경이 제시된다. 반면 『재생』에서 중국 상해는 불길하고 위험한 장소로 재현되기도 한다. 『흙』은 제국과 식민지의 불균질적 공간을 동질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유정』의 서사는 일본의 만주 침략의 흐름과 함께 바이칼 호 일대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광수의 작품 속 인물들이 거의 언제나 일본 제국의 중심인 동경(東京)을 지향하고, 일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상해를 불온한 공간으로 바라보는 등 ‘제국적인 시선’(imperial eyes)⁴¹⁾으로 세상을 보는

41)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2nd Edition)*, Routledge, 2007, p.9.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 문학에서 나타나는 공간지평의 특성은 작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그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세계인식을 보여준다. 향후 ‘군상 3부작’과 『사랑』 등 이광수의 다른 장편소설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광수 문학의 공간적 특성을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이광수, 『춘원이광수전집』, 삼중당, 1962~3.

2. 단행본 및 논문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817-8면 참조.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깊은샘, 2000, 184-6면.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55면.

빌 애쉬크로프트/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17면.

사에구사 도시카쓰/심원섭 역,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배틀북, 2000, 152면.

서영채, 『아침의 영웅주의: 최남선과 이광수』, 소명출판, 2011.

와다 토모미,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예옥, 2014, 34면.

최주한, 『제국 권력への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23면, 46면.

프랑코 모레티/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45면.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역,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260면.

김백영·조정우, 「제국 일본의 선만(鮮滿) 공식 관광루트와 관광안내서」, 『일본역사연구』 제39권, 2014, 42면.

김병구, 「이광수의 “무정”론-식민지적 정신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집, 2004, 285면.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학보』 제9호, 2016, 247면.

우미영, 「동도(東度)의 욕망과 동경(東京)이라는 장소」, 『정신문화연구』 30권 4호, 2007, 108면.

윤홍로, 「춘원 이광수와 ‘유정’의 세계」, 『춘원연구학보』 제1호, 2008, 164면.

이선영, 「“흙”의 서사와 그 의미」, 『춘원 이광수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4, 64면.

- 이철호, 「황홀과 비하, 한국 교양소설의 두 가지 표정」, 『센티멘탈 이광수』, 소명출판, 2013, 208면.
- 임보람, 「‘유정’에 드러난 사랑과 욕망의 문제 연구」, 『우리말글』 제69집, 2016, 246면.
- 정옥경, 「시베리아·일본 관계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1호, 1996, 159-160면 참조.
- 정종현, 「한국 근대소설과 ‘평양’이라는 로컬리티」, 『사이』 4권, 2008, 102면.
- 정주아, 「심상지리의 외부, ‘불확실성의 심연’ 과 문학적 공간」, 『어문연구』 41권 2호, 2003, 270면.
- _____,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2, 50면.
- 정혜영, 「과학과 엮기, 그 사이에서-탐정소설 <엄마>와 <수평선 너머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2권, 2010, 413면.
- 한승옥, 「이광수 소설 공간에 투영된 작가의식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2권, 2004, 14면.
- 홍혜원, 「“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2호, 2004, 67면.

3. 외국 원서

- Jockers, Matthew L., *Macroanalysis: Digital Methods and Literary Histor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3, p.23.
- Moretti, Franco, *Atlas of the European Novel 1800-1900*, Verso, 1998, p.70
- Robert T. Tally Jr. *Spatiality*, Routledge, 2013, p.91.
- Westphal, Bertrand/Tally, Robert T., Jr.(TRN), *Geocriticism-Real and Fictional Spaces*, Palgrave Macmillan, 2015, p.112.



<Abstract>

Lee Gwang-soo's geographical imaginary and Weltanschauung

Kwon, Eun

This thesis centers on four early novels of Lee Gwang-soo - *Heartlessness*, *Regeneration*, *Soil*, and *Heartedness*. The thesis studies the aspects of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of the author's literacy world and examines his revealed historical perception and transforming process of worldview.

For this examination, the study extracted the place names from the texts and analyzed narrative in relevant to the relation of dynamics between each space after marking the place of high frequency on the map and determined the size of circle depending on the frequency. The geographical concept of internal/external border, real space, projected space and etc. were used for analysis.

Lee Gwang-soo's novel does not develop in a fixed place, and the character of space in work vari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period, the situation, and subject consciousness of work because his geographical experience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ther contemporary authors since he personally experienced East Asia region through studying aboard in Tokyo, traveling to china, and stay in Beijing and Shanghai, and reflected it in his literacy world.

Heartlessness is composed of the axis of 'Pyoungyang- Kyungung - Tokyo - (USA)'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dynamics,

Heartlessness is a journey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re the characters in Kyungsung should go from past-oriented Pyongyang and future-oriented Tokyo (and USA). What is unique about this work is that it is the flood at Samrangjin that blocks people who are going to go aboard. In this work, the ‘external boarder’ is hardly exposed, and the flood of Samrangjin functions as a kind of ‘internal border’.

In *Regeneration*, There is a noticeable tension caused by a closed space like ‘prison’. Shanghai is presented as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fallen of the colonial Joseon after 3 · 1 Movement. Shanghai is not directly mentioned, or the central figures do not move, but plays the most important narrative role in *Regeneration*.

Soil shows the opposition within the colony of Seoul/Salyeol on the surface, but in the depths it shows a gradated relationship of Tokyo, Seoul, Salyeol, and Gumbulang etc. The colonial elite who was approved by the Japanese Empire such as Hurong etc. played a role in reducing the spatial gap and helping Japan and Korea to become one unified space.

The space horizons in *Heartedness* are diverse and variously mentioned. It is mentioned in the order of Seoul, Tokyo, Siberia, Baikal, Harbin, and Irkutsk, Contrary to the fact that specific places were mentioned intensively in existing works, several names are mentioned evenly in *Heartedness* which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Joseon, Japan, Manchuria, and the China are linked together into a unified place. *Heartedness* can be understood as a narrative to confirm the extent to which it can reach the continent centering on Tokyo.

Key words: geocriticism, mapping, distant reading, internal border, external border, imaginative geography



투 고 일 : 2017년 1월 31일

심 사 일 : 2017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4일

수정마감일 : 2017년 3월 10일